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보도참고자료

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
http://www.mke.go.kr

문의 : 전력산업과 박성택 과장(010-9358-3454), 김헌태 사무관(010-3304-6806)

제15호 태풍「볼라벤」에 대비 전기설비 비상관리 체계 운영

- 지경부 홍석우 장관, 765kV 신안성 변전소 불시 방문 -
- 태풍 매미 및 곤파스와 같은 패해가 발생하지 않토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 -

□ 홍석우 지식경제부장관은 금일 14시 경기도 안성 소재 '신안성변전소'를 불시방문, 제15호 태풍 “볼라벤”에 대비한 전력계통 관리상황을 점검하였음

○ 新안성변전소는 태안 등 서해안으로부터 수도권에 공급되는 발전력이 집결되는 곳으로 수도권 전력수급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

○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태풍 볼라벤은 2003년 전국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던 태풍 매미에 버금가는 강력한 태풍으로 금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모레 서해를 관통하며 전국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

□ 홍장관은 "지난 2003년 태풍 매미가 우리나라를 강타했을 때 거제도 지역 송전탑이 무너져 당시 부산, 경남 등의 145만여호가 3일 동안 정전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데, 매미에 버금가는 태풍 볼라벤이 서해안 지역을 지나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송전탑 등 전기설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"고 강조하면서,

○ 특히, 지반이 취약한 송전탑에 대해서는 태풍이 북상하기전에 문제가 없는지 특별 진단과 철저한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만약의 사태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구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

□ 아울러 홍장관은 "송전탑 도괴 등의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되겠지만 만약의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광역정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력거래소 차원에서 비상계통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줄 것을 당부"하면서,

○ 여타 에너지시설, 산업단지 등도 강풍이나 폭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태풍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한편, 피해발생시 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강력히 지시

□ 한편, 지경부는 비상계획관실을 중심으로 한전 등 산하 공기업과 지난 8.25일부터 비상근무체제를 가동·운영하면서, 에너지시설 및 산업시설에 대한 피해상황 파악 및 신속한 복구작업 등에 대비중

* 별첨: 태풍 “볼라벤“ 대비 전기설비 및 전력계통 운영계획

<첨부> 태풍 “볼라벤“ 대비 전기설비 및 전력계통 운영계획

□ **(한전)** 전국 14개 지역본부와 협력업체 직원 약 1만명과 복구장비 2,600대를 투입하여 유사시 신속 복구체계를 가동

○ 대기인원 및 장비 현황

구 분	본 사	지역 사업소	협력업체	합 계	복구장비
인원(명)	33	4,554	5,476	10,063	2,600대

○ 태풍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한전에 재해종합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 실시간 상황을 감시하고,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 및 신속 전파를 실시

○ 태풍북상前 설비관리 대응책

- 침수예상지역 긴급설비보강 및 배수펌프장 등 중요선로 점검
- 변전소 급경사지, 철탑부지(법면) 등 방수포 설치, 배수로 정비
- 진행중인 공사현장 특별점검 및 재해대비 안전조치 시행
- 호우대비 송배전 전력구, 변전소 및 지중 저압설비 집중점검 시행
- 취약지역 순시강화, 설비보강, 수목전지 등 시행, 현장 기록관리 철저

□ **(전력거래소)** 만일의 송전철탑 도괴 등 전력계통에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여 “비상전력계통운영계획”을 수립운영

○ 발전기 운전 대기상태를 늘리는 등 전력 예비력을 최대로 확보하여 유사시 즉시 투입이 가능하도록 준비